

제2회

부산무용콩쿨



일시 : 1984. 12. 1일 6시30분
장소 : 시민회관 대강당
주최 : 부산직할시
주관 : KBS부산방송본부
후원 : 한국예총부산지부
부산일보사



- 성명: 김미현
- 생년월일: 1962. 6. 8
- 작품명: 승무
- 작품시간: 6분

해설: 이 춤의 특징은 묵중한 동작으로서 정중동의 내면적인 흥과 멋의 심오한 표현은 신비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몸을 움직이며 표현되는 다양한 동작외에도 長衫소매로 공간에 형성하는 심미적인 모든 현상과 유선은 이 춤만이 가지는 특성이다.



- 성명: 김미선
- 생년월일: 1968. 4. 19
- 작품명: 살풀이
- 작품시간: 5분50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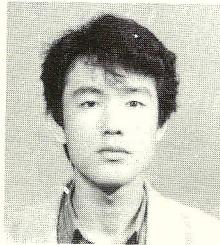
해설: 살풀이는 수건 마디마디에 한이 맺힌 것으로서, 그 한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옛부터 안방에서 추는 춤이다.
지금에 와서는 무대화 시켜 전통 무용으로 쓰이고 있다.



- 성명: 김미희
- 생년월일: 1962. 10. 15
- 작품명: 살풀이
- 작품시간: 6분



- 성명: 황소전
- 생년월일: 1962. 12. 30
- 작품명: 승무
- 작품시간: 6분



- 성명: 주동천
- 생년월일: 1965. 1 23
- 작품명: 승무
- 작품시간: 6분

제2회

부산무용콩쿨

1984. 12. 1
부산시민회관

부산직할시
KBS 부산방송본부





- 성명: 김명희
- 생년월일: 1964. 1. 19
- 작품명: 사약
- 작품시간: 4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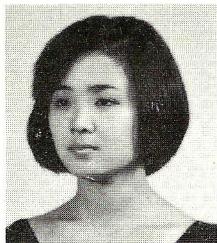
해설: 연산군의 生母

성종 폐비윤씨의 죽음을 묘사한 내용으로 도입부에는 폐비의 비애를 담고 후반에는 초연히 어명을 받는 조선여인으로서의 모습을 담았다.



- 성명: 이영화
- 생년월일: 1962. 12. 29
- 작품명: 연의 마지막자리
- 작품시간: 4분

해설: 緣에 찌든 넋은 한타래 실꾸러미로 엉기고, 그 엉김에 끝이 풀리는 자리에서 한바탕 돌바람의 가락을 떨어 잊은듯 다 잊은듯 소리를 빚어 볼꺼나. 아릿하게 미어지는 넋두릴랑 한바탕 씻김굿에 휘저어 버리고, 그 허무만큼 큰 손짓 하나되어 나 떠나가리....



- 성명: 이윤혜
- 생년월일: 1962. 9. 11
- 작품명: 회상의선율
- 작품시간: 4분

해설: 계절의 문틈에 걸쳐 빙하늘 채운 석양빛에 그리움 메워놓고 슬픔의 결정을 미소하는 가슴 환한 소망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애절한 여인의 태를 그린 작품이다.



- 성명: 최준옥
- 생년월일: 1962. 12. 6
- 작품명: 망향제
- 작품시간: 3분50초

해설: 끊어진 우리 혈맥 마디마다 사무치는 그리운 고향 보고픈 부모형제 오늘도 가슴에 용어리진 망향의 제는 불을 토한다. 기약없는 통일이지만 망향의 염원이 통일을 약속하리.

현대무용

본심진출자



(1)

- 성명: 김현숙
- 생년월일: 1963. 3. 26
- 작품명: 비온후 갠날
- 작품시간: 3분40초

해설: 모든식물이 비를 맞으며 자라듯 인간도 역시 비를 맞으며 갈등속에 커가는 인간성숙을 의미한 작품이다.



(2)

- 성명: 이혜경
- 생년월일: 1960. 6. 18
- 작품명: 신세계
- 작품시간: 4분

해설: 내가 향한 무용의 세계, 그것은 인간신체의 삼차원적 유연성의 표출에 있다.
당신이 원하는 신세계는?



(3)

- 성명: 이은규
- 생년월일: 1960. 4. 26
- 작품명: 끝없는 선
- 작품시간: 4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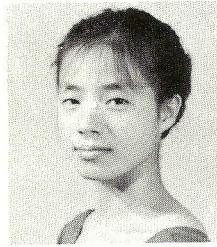
해설: 움직임 그것은 선(Line)이다. 그 선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. 인간사의 희·노·애·락이 랄까? 선으로서의 표현은 무한하다. 선은 점들이 모여서 된다.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한 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삶을 장식하듯 점들이 모여서 선으로 연결된다.
끝없는 선의 추구,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?
알듯 모를듯한 선의 끝을 추구한다. 끝없는 선의 추구, 나의 희망, 바램.



(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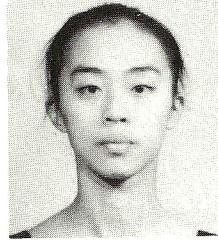
- 성명: 노현정
- 생년월일: 1962. 1. 6
- 작품명: 왕녀에니아스
- 작품시간: 4분

해설: 아파도 안 아픈것 같이 기쁘도 기쁘지 않은것
같이 뛰어가고 싶어도 품위있게 천천히....
왕궁의 생활이 에니아스에게는 곤혹스럽기만
하다.



- 성명 : 김옥련
- 생년월일 : 1966. 1. 18
- 작품명 : 메도라
- 작품시간 : 2분

해설 : 「해적」 중에서 그리이스 소녀 메도라의
pas de seul



- 성명 : 최경은
- 생년월일 : 1968. 9. 4
- 작품명 : 별사탕의 정
- 작품시간 : 3분

해설 : 「호두까기 인형」 중,
아름다운 별사탕의 정의 춤.



- 성명 : 문혜경
- 생년월일 : 1965. 1. 9
- 작품명 : 공기의정 중에서
마주르카
- 작품시간 : 2분45초

해설 : 숲이나 뜬 주위를 떠다니는 공기의 정의 영
상을 마주르카 음악에 맞추어서 안무하였음.



부산무용콩쿨 특별출연

부산대학교

教坊兩班춤

안무 : 김 덕 명

(인간문화재)

출연 : 변 금 희 배 미 향
손 은 영 최 보 인

(부산대 무용학과 2년 재학)

兩班춤은 朝鮮朝貴族階級社會 때 教坊司掌樂院
梨園으로부터 繼承해온 虎班의 춤이다.

優雅燦爛한 兩班의 차림새는 마치 李朝白磁와
같이 清楚하고 兩班의 義氣가 넘치고 때로는 天
下를 눈아래로 보는 舊時代의 士大夫, 閑良들이
官妓들과 餘興으로 즐겨추던 춤으로서 興味盡盡
하여 傳統舞의 精粹라고 알려져 있다.

保有者 金德明

부산발레단

공기의 정

■ 음악 / F. F. Chopin

- 야상곡.....하희옥 외 21명
- 왈쓰.....박귀숙
- 마즈르까.....이애란
- 마즈르까.....장래훈
- 서곡.....양후령
- 왈쓰.....하희옥 / 장래훈
- 화려한왈쓰.....전원우

출연 : 하희옥 박귀숙 이애란

양후령 최인숙 이해정

정경희 홍경도 장래훈

김성희 박경화 안현숙

구미희 심상은 권남영

우태화 우정아 한현주

김수영 엄숙녀 강희숙

해설 : 이 작품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고, 다만 발
레의 우美的 동작과 음악에서 풍기는 시적
분위기를 무대에 형성하는 것이다. 그러
므로 많은 발레작품 중에서 가장 순수한
형태로써 완성된 로맨틱한 作品인 동시에
고전 발레와는 質的으로 다르며, 近代 발레
계열에 속하는 작품이다.

이 작품의 내용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
한 詩人을 둘러싼 공기의 정들과 詩人의
환상의 世界를 詩的 情調에 따라 그린 로
맨틱 발레이다.

제2회 부산무용콩쿨

운영위원회

● 위원장: KBS 부산방송본부장

구 박

● 부위원장: 부산시 기획관리실장

김 준 상

위원

무용평론가
강이문

부산산업대학교수
조숙자

무용협회부산지부고문
황무봉

무용협회부산지부장
배혜경

부산대학교교수
정귀인

동아대학교교수
김해례

심사위원회

● 심사위원장·강이문(무용평론가)

한국무용 전통

주심·김은이(동아대학교 무용과장)
이윤자(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)
손세란(시립무용단 안무자)

한국무용 창작

주심·김현자(부산대학교 무용과 교수)
황무봉(무용학원장)
배혜경(예총지부장)

발레

주심·조숙자(산업대학교 교수)
황창호(무용가)
김정순(부산여대 교수)

현대무용

주심·남정호(부산산업대학교 교수)
하정애(부산여대 교수)
정귀인(부산대학 교수)